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나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A] 가령 은행 ㉡같은, 기업 ㉢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이 발행한 채권이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 ②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 ③ 신용 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 ④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 ⑤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수반된다.

10. [A]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 ②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 ④ ㉣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 ⑤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본다.

11. <보기>의 ㉠~㉣ 중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은?

| 보 기 |

윗글의 ㉠과 ㉣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CDS 거래 ㉡~㉣를 비교하여 CDS 프리미엄의 크기에 순서를 매길 수 있다. (단, 기초 자산의 발행자와 보장 매도자는 한국 기업이며, ㉡~㉣에서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CDS 거래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
㉠	BB+	AAA
㉡	BB+	AA-
㉢	BBB-	A-
㉣	BBB-	AA-
㉤	BBB-	A+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② 과자 한 봉지를 팔면 내게 100원이 떨어진다.
 ③ 더위를 먹었는지 입맛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다.
 ④ 신발이 떨어져서 걸을 때마다 빗물이 스며든다.
 ⑤ 선생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두 자리에 앉았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_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다. 발행 즉시 B_x 전량을 매입한 Y는 B_x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하고 보장 매입자가 되었다. 계약 체결 당시 B_x의 신용 등급은 A-,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였다.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_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AA+로 변경되었다. 2013년 10월 2일, B_x의 CDS 프리미엄은 100bp*였다. (단, X, Y, Z는 모두 한국 기업이며 신용 등급은 매월 말일에 변경될 수 있다. 이 CDS 계약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일에 갱신되며 CDS 프리미엄은 매월 1일에 변경될 수 있다.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요인에는 변화가 없다.)



* bp : 1bp는 0.01%와 같음.

- ① 2011년 1월에는 B_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겠군.
 ② 2011년 11월에는 B_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③ 2013년 1월에는 B_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군.
 ④ 2013년 3월에는 B_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군.
 ⑤ 2013년 4월에는 B_x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supermoon)’을 보게 된다.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현상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이라 한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이심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이 궤도의 장축 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 한다.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 주기로 세 천체가 ‘태양 - 지구 - 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 정도 크게 보인다.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 하는데,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 예를 들어,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각각 0.5° 정도이다.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지구 역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궤도 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다르다.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 궤도의 장축 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갖는데, 이를 각각 원일점과 근일점이라 한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 차이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세 천체가 ‘태양 - 달 - 지구’의 순서로 늘어선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이 관측된다.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태양 면의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이 관측될 수 있다.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다.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약 0.017인데,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한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이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1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양의 인력으로 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약간씩 변화할 수 있다.
- ② 현재의 달 공전 궤도는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보다 원 모양에 더 가깝다.
- ③ 금환 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
- ④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달 공전 궤도 상의 근지점일 때보다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다.
- ⑤ 지구 공전 궤도 상의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북반구의 A 지점에서는 약 12시간 25분 주기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이 관측된다. 이 현상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은 때와 가장 낮은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조차는 북반구의 겨울인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다.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고, 다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과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만이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

- ①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②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보름달이 관측된 1월에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③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때보다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될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④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1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 ⑤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7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7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1> 상황 (괴리, 부정, 화자와 청자)

- 자아는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오이발에 발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별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큰솔밭에 빠꾸기 소리
잔솔밭에 탈거기* 소리

별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별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백석, 「적막강산」 -

* 발배채: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탈거기: 늪은 장끼.

Q1.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 / ×)

(가)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울며 잠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량 -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 축루(空山樓觀)*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거나
윤희 만겁(輪廻萬劫)하여 금강산 학(鶴)이 되어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와나무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月中疎影)*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가엾은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까

- 조위, 「만분가(萬憤歌)」 -

*공산 축루: 사람 없는 산중의 해골.

*만장송: 만 길이나 되는 소나무.

*침변: 베갯머리.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Q2. (가)~(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의 적절 여부를 판단하라.

- | | |
|---------------------------------|---------|
| ①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나타나 있다. | (○ / ×) |
| ②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 / ×) |
| ③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 / ×) |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땡서는 차디찬 타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타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데
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라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엇그제 꽃이 바들 곁에 붉었더니
그 곁에 훌훌하여* 앞에 가득 가을 소리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리기 슬피 울 제
반가운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는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님의 님에 비추고자 / 바위 위에 오동 되어님의 무릎 베고자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건주리오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 훌훌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Q3.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나)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 ×)

(가)

천만리(千萬里) 떠나면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 왕방연 -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
진(諫)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 하노라

- 임제 -

(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쳤으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 원천석 -

*홍안: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만월대: 고려의 왕궁 터.

*목적: 목동의 피리.

Q4.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의 적절 여부를 판단하라.

- | | |
|---------------------------------|---------|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 / ×) |
|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 | (○ / ×) |
|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 / ×) |

(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간*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 정자용, 「인동차(忍冬茶)」 -

- *삼간: 삶긴 물에 삶아 우려낸
- *덩그럭 불: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잠착하다: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책력: 달력.

(나)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

Q5. (가)와 (나) 모두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 / ×)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환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Q6.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워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 김수영, 「사령(死靈)」 -

Q7.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 ×)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쫓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넓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Q8.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청자도 비교적 명확해 ‘당신은 행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현재 화자 앞에 청자가 없으니까 이 시는 독백이라고 봐야 할 거야. (○ / ×)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저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어와 너여이고 나의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임 괴암즉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네로다 여기실새
나도 임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엿던지
반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헤어리니
내 몸의 지은 죄 피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라
설워 풀쳐 해니 조물의 탓이로다
글란 생각 마오 땀한 일이 있어이다
임을 피쳐 있어 임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인고
춘한(春寒) 고열(苦熱)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秋日) 동천(冬天)은 뉘라서 피셨는고

- 정철, 「속미안곡(續美人曲)」 -

Q9.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여 극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 / ×)

벗남네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익은 술 점점 쉬고 지진 화전 상해 가네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떠리

〈제1수〉

어허 이 미친 사람아 날마다 흥동(興動)*일까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이고
우리는 중시(重試) 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려네 <제2수>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우리끼리 놀아 보자
복건 망해(樓市芒鞋)로 실컷 다니다가
돌아와 승유편(勝遊篇)* 지어 후에 유전(後世流傳)하리라 <제3수>

우리도 갈 힘 없다 숨차고 오금 아파
창 닫고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어
배 위에 아기들을 치켜 올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 <제4수>

벗이야 있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양신 미경(良辰美景)*을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라
평생의 이 좋은 회포를 싣껏 펼치고 오리라 <제5수>

- 권섭, 「독자왕유희유오영(獨自往遊戲有五詠)」 -

* 흥동: 흥에 겨워 다님.

*승유편: 즐겁게 잘 놀았던 일을 적은 글.

*양신 미경: 좋은 시절과 아름다운 경치.

Q10. 제1수에서 제5수까지 화자를 바꿔 가며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 / ×)

<2> 객관적 상관물 (환기, 투영, 의탁)

- 자아가 바라보는 세계는 편집된 세계이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

Q1. 비유와 상징을 통해 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 ×)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득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쫓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 정철 「사미인곡」 -

Q2.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 ×)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왁자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앞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편에 있지 아니하고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初雪)」 -

Q3.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정환, 「고향 앞에서」 -

Q4.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사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 / ×)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

Q5. 위 시의 특징을 빌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려고 한다. 창작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품 중간에 감정을 직접 드러낸 표현을 넣는다.
- ② 냉소적 어조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 ③ 마지막 행을 명사로 끝맺어 여운을 준다.
- ④ 조사와 구두점을 적절히 생략한다.
- ⑤ 계절감을 주는 소재를 활용한다.

한 잔 먹세그려. 또 한 잔 먹세그려. 꽃 꺾어 수(數) 놓고 무진 무진 먹세그려.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졸라매 메고 가나 오색실 화려한 휘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 역새풀, 속새풀, 떡갈나무, 백양 속에 가기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회오리바람 불 제 뉘 한 잔 먹자 할꼬
 하물며 무덤 위에 원승이 휘파람 불 때야 뉘우친들 어찌 하리.

- 정철, 「장진주사(將進酒辭)」 -

Q6. '원승'은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 소재이다.

(○ / ×)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한 먹오뎅빛 뿔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뿔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닳아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저울 뿔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뿔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뿔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편 뿔마루」 -

Q7. '집 뒤편'과 '장독대'는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 ×)

“너두 그런 소릴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제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래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까구 그 다리루 글 읽으려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길 내 눈으루 본 발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발 같은 걸 사? 느르지 논 독에 선 느르나문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 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 구팔구 하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렸으며 나라가 어렸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고 땅이 뭔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앓구 현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에 보지 앓드라.”

- 이태준, 「돌다리」 -

Q8.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삶의 추억과 애환이 투영된 장소애의 대상이다.

(○ / ×)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밀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Q9. 윗글의 ‘봄’은 서글픔을 불러일으킨다.

(○ / ×)

(가)

천만리(千萬里) 떠나면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 왕방언 -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
진(鱗)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 하노라

- 임제 -

* 홍안(紅顔):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Q10. (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의 적절 여부를 판단하라.

- ① (가)의 ‘저 물도 내 안 같아서’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 ×)
② (나)의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 ×)